



“따뜻한 겨울 나세요” 29일 광주 북구사회복지행정연구회원과 신규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동심동이의 한 저소득 가정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수 있도록 연탄을 배달하고 있다. 북구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8년간 매년 저소득 가정 15세대에 연탄 3천장씩을 지원해 오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흑산공항 건설 급물살 타나

조명래 환경장관 “흑산도 국립공원 해제 적극 검토”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9일 흑산도의 국립공원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 흑산공항 건설이 급물살을 탈 것인 지 주목된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광산 갑)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2공항, 울릉공항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반면 흑산공항만 아직까지 사업 확장이 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차라리 흑산도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할 의사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답변을 통해 “국토부에서 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그 다음에 환경부가 검토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지금 그 단계까지 안 왔다”며 “(국토부가) 내년여야 제출할 것 같은데 그때 내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흑산공항과 동시에 추진된 울릉공항은 내년 4월 착공이 확정(2025년 개항)됐으며 내년 예산 389억원이 확보된 상황이다. 반면 흑산공항은 지난 2015년 11월 환경부와의 협의가 완료된 이후, 3년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사업 확정을 못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검찰개혁 법안 12월 3일 본회의 부의

문 의장 “부의후 신속 처리”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4건을 12월 3일에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이 같은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관련기사 3면>

한 대변인은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 기간에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은 요청한다”며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임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오는 12월 3일에 본회의에 부의될 법안은 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 4월 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공조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뜻으로, 다음 단계는 법안을 실제 심의하는 상정이다. 국회법에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에 대해 ‘본회의 부의 후 60일 내 상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까지 상정이 안 되면 그 이후 첫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예초 검찰개혁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 부의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문 의장이 입장을 전격 변경했다. /임동욱 기자 tuim@

막오른 예산전쟁...광주시 국비확보 총력

市, 민주당·지역 국회의원과
내일 국회서 예산안 정책협의회
누락·삭감 예산 부활에 집중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결위 심사가 시작되면서 광주시가 정부 예산에서 누락되거나 삭감된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는 오는 31일 국회 예결위 심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광주지역 국회의원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정책협의회를 갖는다. 특히, 광주시는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최근 '100대 문제 사업'이라는 예산안 관련 문건까지 작성하며 삭감을 버리고 있는 광주 핵심 사업 예산 확보 대응책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 예산안 심사 막바지

까지 지역 정치권과 여당의 관심과 노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광주일보 2019년 10월 28일자 1·2면>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용섭 시장과 각 실·국장들은 오는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이형석 최고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광주시는 민주당에 시장 현안을 설명하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국비 지원사업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예산안에 반영됐으나 요구액보다 적게 편성된 사업비 증액도 전향적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한국당 정책위원회가 작성, 대외비로 분류한 '2020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문건에 대한 대응 논리 마련 등 대응책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당 정책위는 해당 문건에서 광주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 조

성사업비, 5·18 진상규명위원회 사업비를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 이어 광주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정배·박주선·장병완·김동철·최경환·권은희·송갑석 지역 국회의원과 오찬 겸 예산정책간담회를 한다.

2020년 정부 예산안에는 광주시 국비 사업 263건, 2조2205억원이 반영됐다. 올해 예산안 2조149억원 대비 10.2%인 2056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신규사업은 78건 1492억원, 계속사업은 185건 2조 713억원이다.

광주시는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사업비 300억원 증액과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미래자동차 편의안전 기술개발 사업비 39억원 ▲창업기업 성장지원센터 건립비 50억원 ▲국립 광주국악원 건립비 70억원 등 국비사업 20여 건, 2000억원이 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논란이 된 한국당의 '2020 회계연

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문건과 관련해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광주일보 통화에서 “실무선에서 분석을 거쳐 일종의 보고서를 마련한 것으로, 지역을 기준 삼아 작성하거나 방침을 세운 것은 아니다. 광주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5·18진상규명사업 예산 관련해서 “예산 삭감 방침을 따지려면 한국당 추천 진상규명 위원을 거부한 문재인 대통령을 탓 해야 할 것”이라는 식의 주장도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文 대통령 모친 강한옥 여사 별세

향년 92세...가족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인 강한옥 여사가 29일 별세했다. 향년 92세.

고인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께서 10월 29일 향년 92세를 일기로 별세하셨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면>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고인의 뜻에 따라 장례를 가족과 차분하게 치를 예정이며, 조문과 조화는 정중히 사양하겠다”는 뜻을 전하셨다”며 “애도와 추모의 뜻은 마음으로 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고인은 노환에 따른 신체기능 저하 등으로 최근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했고, 이날 저녁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생을 마감했다.

이날 오후 수원에서 열린 ‘2019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문 대통령은 행사가 끝난 뒤 곧바로 병원으로 이동했다. 김 여사는 오전에 고인이 입원한 병원에 미리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에도 모친의 건강 악화 소식을 전해 듣고 헬기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해 건강 상태를 살피기도 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츰츰하게 쌓은 레이어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얼굴 구석구석에서 전에 없던 그림자가 보인다면
이제, 탄력에 레이어를 쌓아야 할 때
레이어가 쌓일수록 피부는 탄탄하게 차오르니까
탄력을 촘촘하게 레이어링하는 고농축 진세니스피어™ 캡슐에너지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세요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SERUM
자음생에센스

Sulwhasoo

• 설화수 플래그십스토어 및 전국 백화점,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instagram.com/sulwhasoo_official • 플래그십스토어: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